2017 <위례시민연대>의 '새로운 비전' 선언문

2001년 2월 24일, '지역주민과 후대에게 자랑스런 모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위례시민연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회원들은 새로운 출발인가 아니면 해소인가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섯 차례 '비전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모임의 존재이유를 물었으며,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다.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비전 확인과 우리가 하려는 일을 세웠다. 이에 우리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여 손에 손을 잡으려고 한다.

우리의 비전

1. **(건강하고 성숙한 자치)** 우리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촛불을 들어 무능하고 독선적인 위정자가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는 국민의 힘을 경험하였다. 지방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 때만 굽신하고 당선 후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방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주민자치와 참여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장을 열고자 한다.

2. **(청년세대를 위한 기회제공)** 우리는 부정의와 불평등에 기인한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통감한다.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청년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협동과 공유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3. **(모두를 위한 환경정의)** 우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사능, 유전자 변형 등 미래세대 격을 충격과 공포를 직시한다. 그리하여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의 실천을 통한 환경정의가 구현되도록 한다.

4. **(나눔의 실천과 시민사회 연대)** 우리는 시민에게 문턱 없는 모임을 지향한다. 끼리끼리가 아닌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함께 누리고 나누는 속에서 십시일반을 실천한다. 또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5.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우리는 시민사회의 튼튼한 뿌리가 교육된 민주시민임을 직시한다. 시민의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합리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2017. 9. 21

<위례시민연대> 비전워크샵 참가자 일동